

특별기고 - 중국의 약 특용작물 현장에서 ①

장광진 교수(한국농업전문학교 특용작물과)

한국농업전문학교 특용작물과 학생들은 해외농업을 이해하고 전공분야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지난 9월말경 약 이주간의 일정으로 중국과 일본농업 현장을 다녀왔다. 이 중 우리와 인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약·특용작물의 무역이 많은 중국, 그중에서도 약용작물의 재배, 가공,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국지역과 야생채취가 주를 이루는 백두산지역에서의 약용작물 재배현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최대의 약재도시
허북성(河北城) 안국(安國)

북경에서 다섯시간을 달려 도착한 허북성의 안국. 안국의 거리는 약용작물의 도시답게 귀여운 "인삼동자" 동상이 각국에서 온 손님들을 손저어 인사하고 있었다.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안국은 오래전부터 "약도(藥都)"라는 칭호로 불리워 왔고 "약왕도"는 안국생약역사의 산증인이 되고 있다. 1천 여년 동안 안국민들은 중국에서 으뜸가는 생약재배와 가공을 창조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1991년 안국은 현성에서 시로 건설되었고 개혁의 불바람속에서 한국, 일본 등에 약재를 수출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화하(華夏)의 진귀한 약재가 모인 곳, 단결음으로 구주(九州)를 다 돌아다닌다"고 소문이 높은 안국의 동방약성(東方藥城)은 전국최대의 한약재 전문시장이다. 건축면적은 60만㎡, 품목이 2,000여 가지, 년 교역량이 38.8억 위안, 10만 톤의 연간 교역량을 갖고 있다.

안국시는 서울 경동약령시와도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약재 수출의 상당량이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광면약재공사(光明藥材行)는 1,000여 가지 생약재를 가공 생산하여 연간 교역량이 2,000만 위엔 정도에 이르며 이중 70%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안국의 50만무의 경작지에

서 양식, 면화, 과일이 생산되며 특히 약용작물은 전성의 농작물 총생산량 중 6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약재 재배기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용작물 재배지를 돌아보며 농약문제에 경계를 아나할 수 없었다.

우리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덥고 습한 기후조건과 열악한 농업환경 속에서 생산된 생약에 무방비 상태로 의존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놀랍게도 현지의 생산가격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의 1%에 불과한 작물도 다수 있었다.

중약재 가공공장 투자환경

안국시 약재 가공공장은 1983년 설립된 국유기업으로서 현재 직공이 126명, 고급

문에 시에서는 연간 2,300톤의 생약가공공장 합작방식 설립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계열(銀杏系列) 생약차 생산

현재 허북 안국시 입업국에서는 최선진적인 차 생산시설

양성분을 함유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당뇨 등에 양호한 억제효과가 있는 특유한 보건용으로 보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서는 은행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혈압을 낮추는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쓰고 특히 한국기업에서는 은행잎에서 해독제, 항진균제, 항암제를 추출하여 기관지, 심혈관계통, 신경계에 약용으로 이용하는 데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중초약 사료첨가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재 이용 사료공장은 현직공 30명, 중급이상 기술인원 4명, 지금 180만 위안, 면적 1만 평, 연생산량은 500톤 규모이다. 생산품은 닭, 오리, 돼지, 소, 양, 어류, 새우 등 양식사료 등 16가지 품목으로 전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현대 과학연구가 증명하는 바, 중초약 사료첨가제는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무오염, 무부작용으로서 성능 등 여러면에서 화학 사료첨가제보다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지를 유치하여 규격화된 생약재 생산, 건강차 및 엑스제 생산에서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생약재 가공 수출업에 뛰어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우리 생약업계에서도 수동적인 방어태세를 고수하기보다는 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의 한약재 전문시장 "동방약성"

공정사 1명, 중급 엔지니어 5명이 있다. 총면적은 1.3만평, 건축면적 3,300평, 고정재산 596만 위안, 각종 약재 연 가공량 1,000톤이다.

생약재 액체 계열 상품을 비롯 생약재는 독특한 천연약용효과로 인해 중국내에서도 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생약추출액은 동남아 등 세계각지로 수출되고 있고 시장전망도 밝은 편이나 조사에 의하면 안국시의 생약재 실제 가공능력 은 몇백톤에 불과한 실정. 때

을 유지하여 다양한 성능을 가진 은행계열 생약차를 개발, 국내외 생약 음료시장에서 연 150톤의 생산품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 분석결과 은행계열 생약차는 중국의 특유 진귀한 약용수종인 은행의 신선한 잎을 주요원료로 전통적인 공예와 현대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세밀히 가공한 건강음료로, 침출 원액은 은행의 독특한 풍미, 색깔은 연한 황색으로, 향기로운 맛을 내고 있고, 풍부한 안기산, 비타민 등의 영

최진규의 토종약초 이야기 ⑥

관절염에 좋은 만능약초 - 쇠무릎지기

쇠무릎지기는 비름과에 딸린 한해살이풀로 우슬(牛膝), 쇠물과, 짚골초, 고장근(苦杖根) 등의 여러 이름이 있다. 키는 1미터쯤 자라고 줄기는 네모졌다. 통통한 마디의 생김새가 마치 소의 무릎과 같다 하여 쇠무릎지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 자라는 것이 뿌리도 크고 약효도 높다. 특히 제주도에서 나는 것이 품질이 좋다.

쇠무릎지기는 오래 전부터 나물로 흔히 먹었다. 별 맛은 없지만 점액질과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된다. 봄철에 줄기가 15~20센티미터쯤 자랐을 때 채취하여 나물로 무쳐

먹거나 밥 위에 얹어 찌서 먹는다. 요즘에는 나물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쇠무릎지기는 수렴, 이뇨, 진통,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임질, 산후 복통, 요통, 관절염, 생리불순, 각기, 수종, 압, 음위 등을 치료하는데 널리 쓴다. 옛 의학책에는 쇠무릎지기는 맛이 쓰고 시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으며, 내장이 허약한 것과 남자의 양기부족, 노인의 빈뇨증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또 음을 보하여 정력을 세게 하고 내장을 튼튼하게 하여 골수를 채우고 머리칼이 희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쇠무릎지기 뿌리에는 곤충

변태 호르몬인 에크디스테론과 이노코스테론이 들어 있다. 이 두 물질은 곤충의 유충이 번데기가 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다.

쇠무릎지기는 임실중절 효과가 뚜렷하여 임실중절약으로도 쓴다. 쇠무릎지기 뿌리를 7~8센티미터 길이로 잘라 증기로 찌 다음 한 끝을 실로 묶어 자궁 안에 넣으면 자궁이 수축하여 임신중절이 된다. 이밖에 산후에 자궁이 수축되지 않을 때, 자궁 출혈 등에도 달여서 먹거나 달인물로 씻으면 효험이 있다.

요로결석이나 복수가 찼을 때, 중풍, 어혈이 뭉쳐 있을 때 등에도 쇠무릎지기를 달여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

요로결석에는 하루 30그램을 물로 달여서 수시로 복용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올 때에도 30~40그램을 물로 달여서 먹는다.

쇠무릎지기는 대표적인 관절염 치료약이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대개 쇠무릎지기가 들어간다. 흔히 마디 모양이 소의 무릎을 닮아서 무릎이 아픈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류머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 풍습성 관절염에 모두 효과가 있는데 꾸준히 오래 복용하면 효험을 본다.

쇠무릎지기 뿌리를 50킬로그램 이상 채취하여 잘 씻은 다음 큰 가마솥에 넣고 푹 삶는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24시간쯤 달인 다음 약재를 건져내고 남은 약물을 다시 24시간쯤 졸여 물엿처럼 되면 이것을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밥 먹기 전에 2~3숟갈씩 먹는다.